

쌀 종자 국산화...전남쌀 종자 독립 꿈꾼다

농협 전남본부, 내년 벼 외래품종 1500ha로 감축...새청무 10만ha 목표
일본 ‘히토메보레’ 1.1%·‘고시히카리’ 0.2% 등 외래품종 1.4% 점유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오는 2024년까지 벼 외래 품종 재배면적을 1000ha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전남 벼 대표 품종 새청무는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가량인 8만ha에서 재배된다. 13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벼 재배면적 15만6026ha 가운데 국산 품종 면적은 98.6%에 달하는 15만3831ha이었다. 외래품종 재배 비율은 1.4%로, 면적은 2195ha 정도다. 전남에서는 벼, 보리, 찰보리를 포함한 100여 종의 식량작물이 생산되고 있다. 일본계 ‘히토메보레’가 1772ha로(1.1%) 가장 많고, 고시히카리 357ha(0.2%), 밀키린 66ha(0.04%) 등이 뒤를 이었다. 농협과 전남도는 지난 2017년 개발된 전남 대표 벼 품종 ‘새청무’를 필두로 ‘전남쌀 종자주권 독립’을 꿈꾸고 있다.

올해 전남에서는 벼 재배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새청무’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새청무 계약 재배면적은 지난 2019년 1만ha, 지난해 2만1000ha, 올해 8만ha 등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새청무는 전남농지 재배에 가장 적합하고 기후변화에 강해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새청무는 지난해 잦은 강우와 태풍에도 벼가 쓰러지거나 이삭에서 썩어 트는 피해가 적었다. 다

른 도에서도 보급종으로 선정되는 등 종자 수요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종자원 보급종 생산과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우량종자 증식사업을 통해 종자 4400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재배면적이 10만ha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농협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근 합평군 엄다면 들녘에서 전남쌀 종자주권 독립 선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농업 확대를 위한 스마트 자율주행 모내기 와 지능형 드론방제시스템 시연 행사도 선보였다. 스마트 자율주행 이앙기는 농업인이 이앙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스스로 못자리를 찾아가며 모를 옮겨 심는 기기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반듯하게 모 내기를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스마트 지능형 드론 방제는 다수의 농경지에 스스로 약제를 살포하는 자동방제 시스템이다. 기존 드론 방제가 지녔던 중복 방제 문제와 누락구간 발

생, 농경지 주변의 전선 및 나무로 인한 충돌 및 추락사고 등을 줄였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행사 취지에 맞춰 광복회 전라남도지부 200여명의 독립유공자·자손들에게 전남쌀 대표 광역브랜드인 풍광수도 400포대(4kg)를 기증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서홍 농협 전남 지역본부장, 이개호 국회의원, 이상익 합평군수, 광주 전남RPC협의회 회장, 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우리나라 종자주권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 외래품종을 국산품종으로 대체하고 안전한 고품질 쌀생산에 앞장서겠다”며 “올해는 농협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농협을 믿고 함께해 준 농업인과 국민의 60년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교육

오늘부터 2주간 진행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나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30명이다. 이들은 총 70시간 과정을 이수하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키워진다. 이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각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는 이 교육은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안전관리 법령해설 및 건설안전 정책 과목을 시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현장조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번기 인력난 해소 농어촌공사가 함께합니다

이달까지 일손 돕기 집중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농번기 일손 돕기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농어촌공사 부서 80곳, 1168명의 직원들은 영농철을 맞아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냈다.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등 부족해진 농촌 인력을 해결하고자 추진했다. 공사 직원들은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며 벼 수확, 양파 및 마늘수확 등 일손을 도왔다. 김인식 사장은 “농촌 인력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고령 농가는 일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전사적 일손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 특별전 진행 롯데백화점 광주점(정장 나연·오른쪽)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0일 고흥군청에서 ‘도·농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고흥 우수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특별전을 열기로 했다. <롯데쇼핑 제공>

대한민국식품명인 전통식품 제작과정 개방

aT, 사진·영상·VR로 제작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들 자료가 국민 누구나에게 개방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문화정보원과 지난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을 담은 사진·영상·가상현실(VR) 및 3D 입체 자료가 고품질 저작물로 제작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 aT는 최근 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물 확충사업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국민이 저작권에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은 500여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전통식품의 명맥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2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전통방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실현한 장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작물로서의 보존 가치와 우수성이 인정된다. 김춘진 aT 사장은 “문화 디지털 전문 기관인 문화정보원과 함께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을 기록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본격 행락철 “자고 나면 오른다” 상추 값 2배 ↑

주요 채소·과일 두 자릿수 상승

행락철을 맞아 상추 가격이 2배로 뛰었다. 달걀과 건고추, 오이, 애호박 등 주요 채소와 과일 값도 ‘두 자릿수’ 상승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상추 100g 가격은 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400원)보다 2배(100%) 뛰었다. 건고추(화건) 600g 값은 1만1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63.6% 올랐고, 취청오이 10개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40% 상승했다. 깐마늘 1kg은 9000원으로, 전년(6000원)보다

50% 올랐고, 풋고추(청양) 100g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16.7% 가장 상승했다. 무 1개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올랐다. 애호박 1개 값은 지난 9일 기준 1500원으로, 전년보다 50%(500원) 올랐지만, 이튿날 1200원, 10일 1000원으로 전년 수준을 회복했다. 배(신고) 10개 가격은 3만5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51.4% 올랐다. 사과(후지) 10개 값도 3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21.2% 상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 확산 영향으로 달걀(특란) 한 판 값은 7700원으로, 전년 4200원 보다 83.3%나 오른 상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내 곤충시장 규모 414억원...사료용 곤충 판매액 22.5% ↑

광주·전남 곤충업 업체 199곳

광주·전남 곤충업 관련 업체는 지난해 기준 199 곳으로, 전년보다 3곳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곤충 판매액이 40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료용 곤충 판매액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곤충업 농가·업체(생산·가공·유통)는 지난해 말 기준 2873개로, 전년(2535개)보다 13.3%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719개, 경북 501개, 경남 339개 등 순으로 많았다.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6.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비중은 식용 51.6%, 사료용 22.5%, 학습·애완용 10.7%, 기타 15.6%였다. 사료용 매출은 전년보다 22.5% 증가했는데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판매액이 2017년 8억 원에서 지난해 93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식용곤충 판매액은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 곤충업 신고(생산·가공·유통)업체를 신고 유형별로 보면 생산업 1416개, 가공업 8개, 유통업 165개였고 두 가지 이상의 업을 신고한 업체는 1284개였다. 사육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1242개, 장수풍뎅이 407개, 귀뚜라미 279개, 갈색거저리 274개, 동애등에 166개, 사슴벌레 152개, 나비 25개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3~5월 실시됐다. /백희준 기자 bhj@

투자하실 분! 모십니다

- ▶ 경기/수도권 지역
- ▶ 급매물/경매 입찰·낙찰 특수물건
- ▶ 투자금 - 3억 이상
- ▶ 수익금 - 월1부 법적보장
- ▶ 원금 - 법적보장(담보1순위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문의. 010-3605-5000